

2011. 10. 6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G20 국제회의 「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, 그리고 G20의 역할」

G20 Conference on
Enhancing Global Governance
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G20

- 일 시: 2011년 10월 6일(목) 09:00~17:30
- 장 소: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2.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의 역할

[로르데스 아란다 비자우리 멕시코 외무부 차관]

- G20은 1929년 이후 가장 심각했던 세계 금융위기를 관리하면서 그 유용성을 보여줌.
- Financial Stability Board (FSB)를 설립하여 금융위기를 신속히 관리하는 한편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개혁을 이끌어 냄.
-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프레임과 회원국 상호평가 과정(Mutual Assessment Process)을 설립해 단기적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위기 방지에 주력

- G20은 G7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비해 현재의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지만 합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.
- G20이 세계경제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.
 - 이를 위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비회원국과의 협력 확대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함.
- 2012년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프레임의 집행, 금융규제와 감독,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.

[브랜던 번 주한 호주 부대사]

-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주요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, 호주는 G20을 적극 지지함.
- 국제적 공조는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G20은 주요국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적 불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음.
-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,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잘 극복 되어야하며, 둘째 금융규제의 국제적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G20은 이와 같은 도전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[올리비에 콜롬 프랑스 G20-G8 대통령 자문위원]

- 2008년 금융위기 시에 부시 대통령이 G20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했음에도, 현재 유럽 발 재정위기에서 G20의 유용성은 다시 도전받고 있음.
-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적법성과 집행능력이 없는 G20이 적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유용성을 보여주어야 하며, 이를 위한 회원국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
- G20에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인데, 일례로 지난 6월 G20 농림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국제적 곡물가격 문제를 들 수 있음.
- 현재 G20이 당면한 세 가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
 - 첫째, G20의 기능을 더욱 효율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.
 - 둘째, 국제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, 이를 위한 중앙은행 간의 공조가 필요함.
 - 셋째, DDA가 고착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WTO의 거버넌스 문제이므로 이의 효율화 방안에 관해 의논할 필요가 있음.

[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]

-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G7나 BRICS 등 다른 기구가 G20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논의를 G20 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.

- G20의 국가 간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G20이 회원국들만의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, 보다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G20의 국제기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함.
 - 첫째, G20에서 논의할 의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립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.

 - 둘째, 현재 G20은 트로이카 시스템과 steering committee가 의장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장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와 다른 회원국 간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 - 셋째, 사무국을 설립해 G20 의장국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